

俞晚柱의 經書 인식과 학습

강 문 식*

1. 머리말
2. 俞晚柱의 經書 인식
 - 1) 古代 史書로서의 인식
 - 2) 經書 讀本의 체계화
3. 經書 학습의 방법과 실제
 - 1) 經書 학습의 기본 원칙
 - 2) 『欽英』에 나타난 經書 학습의 실제
4. 맺음말

1. 머리말

俞晚柱(1755~1788)의 『欽英』은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일기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자기서사로서의 일기의 특성을 구현하고 공사 영역 가운데서 자아의 위치를 탐구하며 사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면모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¹⁾ 이에 따라 『흙영』은 자료가 소개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²⁾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金何羅, 2011 『俞晚柱의 『欽英』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면.

2) 『흙영』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金何羅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다(위의 논문, 4-10면 참조). 이에 따르면 1996년에 김윤조가 발표한 『유만주가 본 연암』이 『흙영』을 다룬 첫 번째 연구이며, 1997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흙영』 영인본이 발간된 이후 한문학, 서지학, 의료사,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흙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흙영』을 독서일기의 측면에서 주목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흙영』에는 유만주가 읽었던 수많은 서적들의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유만주의 독서 활동, 학문 경향, 문학·예술적 취향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서일기의 측면에서 『흙영』을 고찰한 연구는 대부분 한문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밖에 명·청을 비롯한 외국 서적 수입 상황이나 서적 해제로서의 『흙영』의 성격 등을 고찰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반면, 유만주의 經書 학습에 관한 내용은 아직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분량적인 면에서 보면 『흙영』에서 경서 학습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만주가 1774년 겨울에 친구 任魯와 함께 경전을 공부하던 중 纂錄 방식을 모색하다가 일기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듬해 1월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³⁾ 『흙영』은 그 시작부터 경서 학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禮記』·『詩經』·『書經』을 모르면 역사를 쓸 수 없다.”⁴⁾ “『詩經』·『書經』을 암송하는 것이 문장의 근본이다.”⁵⁾ 라는 주장은 그가 經學을 史學이나 文學의 토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경서 학습이 유만주의 학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며, 그의 학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서 학습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흙영』에 수록된 경서 학습 관련 내용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유만주가 儒家經書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에 따라 학습의 측면에서 경서들을 어떻게 체계화했는가를 검토하겠다. 3장에서는 유만주가 제시한 경서 학습의 원칙들을 정리하고, 이어 『흙영』에 수록된 경서 학습 사례들을 통해 그의 경서 학습의 실상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金何羅, 앞의 논문, 3면.

4) 『欽英』 원본 제9책, 1780년 4월 23일(영인본 제3책, 84면). 이하 괄호 안에 표시한 영인본의 책과 면은 1997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간한 『흙영』 영인본의 책수와 면수이다.

5) 『欽英』 원본 제20책, 1785년 12월 10일(영인본 제6책, 92면).

2. 俞晚柱의 經書 인식

1) 古代 史書로서의 인식

유만주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역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스스로 史家가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⁶⁾ 이러한 경향은 그의 儒家經書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가 경서를 중국 고대의 역사적 사실이 수록되어 있는 史書로 이해했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

경서를 중국 고대의 史書로 이해하는 유만주의 관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서는 『春秋』와 『書經』이다. 먼저, 『춘추』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1775년 5월 30일의 일기에서 유만주는 “『춘추』는 경서 중의 역사서이고 『강목』은 역사서 중의 경서”라고⁸⁾ 하여 『춘추』를 역사서로 보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1780년 10월 11일 일기에서 위나라 州吁가 군주를 시해한 일에 관한 『춘추』의 기사를 예로 들면서 『춘추』의 내용은 曲直이 명료하고 是非가 분명하기 때문에 亂臣賊子가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두려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回心하게 된다고 하였다.⁹⁾ 이 또한 후세의 난신적자들이 『춘추』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회심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춘추』를 역사서로 보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춘추』를 역사서로 보는 관점은 『춘추』의 주석서에 대한 평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79년 10월 19일 일기에는 『춘추』의 대표적 주석서인 『左氏傳』·『公羊傳』·『穀梁傳』에 대한 羅欽順의 평가가 인용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나흠순은

6) 金何羅, 앞의 논문, 110-123면.

7) 유만주가 經書, 특히 五經을 중국 고대의 史書로 이해했다는 것은 五經이 갖는 史書의 성격을 주목했다는 의미이지, 그가 五經을 史書로만 인식하고 經書의 성격은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유만주는 經書 讀本을 편찬할 때 五經을 포함시켰고, 독서법을 논할 때도 五經을 경서의 독서법인 ‘讀’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분류하여 ‘閱’의 방법으로 읽는 史書와 구분하였다. 이런 점들은 유만주가 기본적으로 五經을 경서로 인정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8) 『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5월 30일(영인본 제1책, 65면).

9) 『欽英』 원본 제10책, 1780년 10월 11일(영인본 제3책, 237면).

“『좌씨전』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풍부하고, 『공양전』·『곡량전』은 의리가 정미하다.”라고 각각의 특징을 지적한 다음, 『좌씨전』의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사실을 풍부하게 수록한 것은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공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¹⁰⁾ 나흠순은 춘추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좌씨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유만주가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유만주도 나흠순의 평가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즉, 유만주는 『춘추』를 역사서로 보았기 때문에 그 주석서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수록한 『좌씨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경』에 대한 언급을 보면, 유만주는 1776년 5월 17일의 일기에서 『서경』과 『시경』을 통해 은·주 시대의 풍속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¹¹⁾ 『서경』을 은·주 시대의 역사를 수록한 책으로 규정하였다. 또, 1778년 9월 26일의 일기에서는 南宋의 학자 張九成의 『泰誓論』을 인용하면서 『서경』이 상고사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했으며,¹²⁾ 1779년 7월 21일 일기에서는 『서경』 『禹貢』이 300여 개의 글자로 천하의 광대함을 서술했다고 하면서 “옛 역사의 간략하면서도 갖추어져 있음이 이와 같다.”라고¹³⁾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유만주가 『서경』을 중국 고대의 史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유만주는 『춘추』와 『서경』이 고대의 史書일 뿐만 아니라 후대 역사서술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775년 10월 9일 일기에서 유만주는 “고대 역사서의 體裁를 볼 수 있는 책은 『書經』과 『春秋』 뿐이다.”라는 주희의 말을 인용한 다음,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통감강목』은 『춘추』를 조술했고 紀事本末은 『서경』을 조술했다.”라고 하였다.¹⁴⁾ 이는 『통감강목』에서 시작된 綱目體와 특정 사건에 관한 기사들을 모두 모아서 사건의 전말을 기술하는 紀事本末體의 연원이 『춘추』와 『서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만주는 1776년 5월

10) 『欽英』 원본 제7책, 1779년 10월 19일(영인본 제2책, 534면).

11) 『欽英』 원본 제2책, 1776년 5월 17일(영인본 제1책, 145면).

12) 『欽英』 원본 제6책, 1778년 9월 26일(영인본 제2책, 221면).

13) 『欽英』 원본 제7책, 1779년 7월 21일(영인본 제2책, 471면).

14) 『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10월 9일(영인본 제1책, 81-82면).

23일 일기에서 『춘추』는 공자의 필삭을 거친 저술로 후세 국가 통치와 역사 편찬의 기준이 되었다고 했으며,¹⁵⁾ 1780년 2월 17일 일기에서도,

역사서는 『상서』와 『춘추』에서 시작되었으니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상서』는 비록 여러 경로로 나온 듯하지만, 하나의 일을 기록하여 한 편이 되었고 한 편은 한 사람이 기록하였다. 『춘추』는 공자가 특별히 쓴 것으로 문인들은 한 마디도 돕지 못하였다. (『춘추』의) 三傳은 각각 자신의 뜻으로 경서를 해석하여 그 일을 전하였다. 『國語』·『世本』·『戰國策』 등도 모두 한 史家의 말이며, 『사기』 이하 17代史도 역시 모두 한 사람이 완성한 것이다.¹⁶⁾

라고 하여, 한 명의 史家에 의해 하나의 역사서가 편찬되는 필법이 『춘추』와 『서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은 곧 유만주가 『춘추』와 『서경』을 후대 역사서 및 역사서술의 전범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만주는 『주역』·『시경』·『예기』 등에 대해서도 『춘추』나 『서경』 만큼 직접적으로 史書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의 제도와 삶의 실상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서술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책으로 규정하였다.

『周易』을 통해 乘除·往復·屈伸·消長の 이치를 미루어 볼 수 있으니 『周易』을 알지 못하면 역사를 쓸 수 없다. 『詩經』을 통해 性情·風謠·治亂·盛衰의 은미한 것을 볼 수 있으니 『詩經』을 모르면 역사를 쓸 수 없다. 『禮記』를 통해 儀文과 度數의 情節을 징험할 수 있으니, 『禮記』를 모르면 역사를 쓸 수 없다.¹⁷⁾

위의 인용문에서 『周易』의 ‘乘除·往復·屈伸·消長の 이치’는 인간 사회의 운

15) 『欽英』 원본 제2책, 1776년 5월 23일(영인본 제1책, 149면).

16) 『欽英』 원본 제9책, 1780년 2월 17일(영인본 제3책, 33면) “史始於尚書春秋 大抵皆一人之筆 尚書雖雜出然而紀一事自一篇 一篇自一人 春秋則孔子特筆 而門人一辭不能贊者矣 三傳各以其意釋經 而其事傳焉 若國語 若世本 若戰國策 皆一家言 自史記以下十七代史 亦皆一人成之.”

17) 『欽英』 원본 제9책, 1780년 4월 23일(영인본 제3책, 84면) “易推乘除往復屈伸消長之理 故不知易 不足以爲史 詩觀性情風謠治亂盛衰之微 故不知詩 不足以爲史 禮徵儀文度數之情節 故不知禮 不足以爲史.”

영을 위한 儒家의 근본 원리이고, 『詩經』의 ‘性情·風謠·治亂·盛衰의 은미함’은 국가 운영의 실상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심성 상태를 의미하며, 『禮記』의 ‘儀文과 度數의 情節’은 정치·사회적 제도와 운영의 실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역』·『시경』·『예기』 등은 『춘추』나 『서경』처럼 역사서의 체재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 사회 제도의 원리와 실재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史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편찬을 위해서는 이 경서들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유만주는 『춘추』와 『서경』뿐만 아니라 『주역』·『시경』·『예기』 등 五經 전체가 인간의 역사를 수록한 책이며, 따라서 史書를 학습하고 현재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책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경서를 史書로 간주하는 유만주의 인식은 清代 학자 章學誠(1738~1801)의 ‘六經皆史說’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흙영』에 장학성의 저술을 읽은 기록이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점에서 유만주가 장학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경서를 史書로 보는 관점이 장학성에게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어서, 北宋의 歐陽修도 六經을 역사서로 보는 입장을 개진했고 明代 학자 宋濂·王世貞·李贄·胡應麟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⁸⁾ 따라서 경서를 史書로 보는 유만주의 인식은 송·명대 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는 주목되는 인물이 王世貞(1526~1590)과 李贄(1527~1602)이다. 이는 『흙영』에 유만주가 왕세정의 저작인 『古今法書苑』·『四部藁』·『四部稿選』·『弇山堂別集』·『弇州詩部』 등과 이지의 저작 『續藏書』를 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와 같은 유만주의 독서 이력은 그가 왕세정·이지의 학문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경서를 사서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선의 학자 중에서도 경서를 史書로 인식했던 이가 유만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5세기의 학자 權近(1352~1409)은 『춘추』·『서경』·『시경』을 중국 三代의 역사를 수록한 史書로 인식했으며, 특히 『춘추』와 『서경』은 본래 史

18) 趙令揚, 吳金成 譯, 1985 『李卓吾의 歷史論』 『中國의 歷史認識(下)』, 508면.

19) 홍선표 외, 2006 『17, 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 혜안.

書였지만 聖人の 刪定을 거쳤기 때문에 經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⁰⁾ 또, 유만주와 동시대를 살았던 丁若鏞(1762~1836)도 경학과 사학을 일치된 것으로 보고, 경서를 고대의 제도적 실상을 수록한 역사로서 이해하였다.²¹⁾

이렇게 볼 때, 경서를 史書로 이해하는 입장이 유만주만의 특징적 면모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서를 史書로 이해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유만주가 권근·정약용 등과 구별되는 모습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권근이나 정약용이 경서를 史書로 인식한 데에는 경세학적인 목적이 투영되어 있었다. 권근은 경서에 기록된 삼대 이상 군주들의 정치 운영을 현실에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상정했고, 따라서 경서를 경세론의 텍스트로 생각하였다.²²⁾ 정약용도 천하의 이치는古今이 같으므로 先王의 제도는 후대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학 연구에서 발견한 三代의 제도를 현실개혁의 방안으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즉 정약용에 있어 경서는 곧 經世書였다.²³⁾

이에 반해 유만주가 경서를 史書로 인식했던 것에서는 경세학적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보다는 史家가 되고자 했던 그의 지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유만주는 “史學의 어려움이 經學과 동일하니, (史家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되며 또 (史家의) 이름을 사람으로부터 함부로 받아서도 안된다.”라고²⁴⁾ 하여 史學을 經學과 대등한 학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유만주에게 학문의 최종 단계는 史學이었다. 그리고 경서는 중국 고대의 역사가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聖人の 筆削을 거쳐 ‘經’이 됨으로써 절대적인 신뢰성을 확보한, 史書의 전범이었다. 따라서 유만주에게 경서 학습은 史書의 전범을 연구하는 것이자 좋은 史書를 편찬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었다. 유만주가 경서를 ‘중국 고대의 史書’로 인식한 이면에는 이상과 같은 학문적 요

20) 강문식, 2008 『權近의 五經 인식』 『泰東古典研究』 24, 95면.

21) 김문식, 2005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韓國實學思想研究(1)-哲學·歷史學篇』, 74-75면.

22) 강문식, 앞의 논문, 96-97면.

23) 김문식, 앞의 논문, 74-75면.

24) 『欽英』 원본 제9책, 1780년 4월 23일(영인본 제3책, 84면) “史學之難 與經學同 自不可以此名 輕加之于人 亦不可以此名 輕受之于人.”

인이 내재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점에서 권근과 정약용이 경제학적 목적에서 ‘經書=史書’를 주장했던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2) 經書 讀本의 체계화

1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史家로의 지향을 갖고 있었던 유만주는 경서를 중국 고대의 史書로 인식했으며 올바른 역사서술을 위해서는 경서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학습 대상이 되는 경서들을 종합·정리하여 讀本의 형태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유만주가 경서 讀本을 편찬하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은 1779년으로, 이해 8월 28일 일기에는 『欽英閣五經讀本』과 『四書閣本』의 두 가지 서명이 등장한다. 유만주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주역』·『서경』·『시경』·『예기』·『춘추』의 正文, 즉 經文만 기록하고 傳注는 제외한 형태의 독본이며, 후자는 『논어』·『맹자』·『대학』·『중용』의 四書를 『欽英閣五經讀本』과 같은 형식으로 종합해 놓은 책이다.²⁵⁾ 이를 통해 유만주가 초반에는 전통적인 四書五經 체계를 수용하여 경서 학습 체계를 정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四書五經 텍스트는 明代에 편찬된 『四書大全』과 『五經大全』이고 이 大全本들이 모두 古文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만주의 경서 독본 역시 기본적으로 古文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²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四書閣本』의 존재이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유만주는 五經을 중국 古代의 史書로 인식했기 때문에 五經을 대상으로 하는 독본을 편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四書에 대해서는 史書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바가 없었으므로 『사서각본』의 편찬 목적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25) 『欽英』 원본 제8책, 1779년 8월 28일(영인본 제2책, 496면).

26) 유만주는 『書經』의 금·고문을 비교할 때 고문을 기준으로 금문의 다른 점을 서술했는데 [『홍영』 원본 제3책, 1777년 5월 8일(영인본 제1책, 341면)], 이 역시 그의 경서 독서고문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만주가 청대 고증학자나 19세기 정약용 등과 같이 금문·고문의 차이나 진위 여부를 고려하면서 경서를 읽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즉, 그에게 경서의 금·고문 논쟁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지 독서 과정에서 금문과 고문의 문장 차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 두는 정도에 그쳤다.

선생이 학자들에게 말하였다. “학문은 마땅히 『大學』으로 間架를 만든 다음 『論語』와 『孟子』로써 채워나가야 하며, 大眼小心하여 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야 한다.”²⁷⁾

위 글은 유만주의 학문 체계에서 四書가 갖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大學』으로 間架를 만든다는 말은 학문의 기본적인 틀을 정립한다는 뜻으로, 곧 경서 학습의 시작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만주는 『대학』을 ‘증자의 저작으로 학문의 근본이 되는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²⁸⁾ 이렇게 볼 때, 유만주는 경서 학습의 출발점이자 기초라는 측면에서 四書를 중시했으며, 체계적인 四書 학습을 위해 『四書閣本』을 편찬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欽英閣五經讀本』과 『四書閣本』 단계에서의 경서 체계나 유만주의 四書 인식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인식에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783년경이다. 유만주는 이 해의 9월과 10월 일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서 체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경우들은 독본 편찬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학습 대상으로서의 경서 체계에 대한 유만주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1783년 9월 21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孝經』은 1,903字, 『論語』는 11,705字, 『孟子』는 34,685字, 『周易』은 24,107字, 『尙書』는 25,700字, 『詩經』은 39,234字, 『禮記』는 99,010字, 『周禮』는 45,806字, 『春秋內傳』(『左氏傳』)은 196,840字로 합하면 모두 478,990字이다. 1장에 10행 20자를 기준으로 하여 날마다 400자 2장을 읽는다고 하면 비록 더디더라도 만 4년이면 모두 마칠 수 있다.²⁹⁾

27) 『欽英』 원본 제12책, 1781년 7월 5일(영인본 제4책, 14면) “先生於學者曰 學問當以大學爲間架 語孟爲填補 大眼小心 敬貫終始.”

28) 『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2월 17일(영인본 제1책, 18면).

29) 『欽英』 원본 제16책, 1783년 9월 21일(영인본 제5책, 59면) “孝經 一千九百三字 論語 一萬一千七百五字 孟子 三萬四千六百八十五字 周易 二萬四千一百七字 尙書 二萬五千七百字 詩 三萬九千二百三十四字 禮 九萬九千一十字 周禮 四萬五千八百六字 春秋內傳 十九萬六千八百四十字 合四十七萬八千九百九十字. 準一張十行二十字例 日讀四百字二張 雖遲之 滿四年則可畢.”

위 글에서 유만주는 학습 대상으로서 9개의 경서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欽英閣五經讀本』·『四書閣本』과 비교해 볼 때 『대학』·『중용』이 빠진 대신 『孝經』·『周禮』가 새로 포함되었으며, 『춘추』의 경우 三傳 중에서 역사적 사실을 가장 충실하게 수록한 『춘추좌씨전』이 텍스트로 선택되었다. 『孝經』은 일찍이 유만주가 『대학』과 함께 증자의 저술로 인정하면서 ‘행실의 근본이 되는 책’이라고 평가했던 책이다.³⁰⁾ 또, 유만주는 “『周官』은 『周禮』의 經이고 『周禮』는 『周官』의 傳”이라고³¹⁾ 했는데, 이는 그가 『주례』를 周代の 제도와 역사를 수록한 史書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효경』과 『주례』가 유만주의 학습 대상 경서에 포함된 것은 1차적으로 이상과 같은 그의 경서 인식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효경』이 포함된 데에는 영조가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737년(영조 13)에 『孝經大義』를 교서관에서 간행·반포하도록 했던 당시의 동향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효경』과 『주례』가 9經에 포함된 배경으로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十三經注疏』의 영향이다. 실제 『흠영』을 검토해 보면, 유만주가 경서 학습 과정에서 『십삼경주소』를 많이 참고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맹자』를 공부하면서 『십삼경주소』에 실린 漢代 학자 趙岐의 주석을 참고한 것과³³⁾ 『춘추좌씨전』을 학습할 때 『십삼경주소』의 杜預 주석을 참고한 것³⁴⁾ 등을 들 수 있다. 또, 유만주는 “『십삼경주소』, 五經, 四書, 大方二十三史合綱, 程·朱 諸書, 司馬遷·班固의 문장만 갖추었으면 그 외의 책들은 없어도 괜찮다.”고³⁵⁾ 하여 『십삼경주소』를 학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서적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유만주가 『십삼경주소』를 매우 중시하고 애독했음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십삼경주소』의 체제가 유만주의 경서 체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

30) 『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2월 17일(영인본 제1책, 18면).

31) 『欽英』 원본 제2책, 1776년 5월 18일(영인본 제1책, 146면).

32) 영조대 『효경대의』 간행의 배경과 추이에 대해서는 우경섭, 2012 『조선후기 『효경』·『충경』 이해와 효치론』 『정신문화연구』 126, 48-53면의 내용을 참조.

33) 『欽英』 원본 제2책, 1776년 10월 24일, 11월 2일(영인본 제1책, 224-228면, 231면).

34) 『欽英』 원본 제17책, 1784년 5월 29일(영인본 제5책, 240면).

35) 『欽英』 원본 제19책, 1785년 5월 18일(영인본 제5책, 501면).

능성을 시사해 준다.

반면, 『대학』과 『중용』이 제외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약 1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의 일기에서 이 두 책이 다시 경서 체계에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이 때 『대학』·『중용』이 제외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783년 10월 10일 일기에서 유만주는 과거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시험 과목으로 삼을 경서들을 제시하였다.

선비를 시험하는 제도는, 10經을 漢城과 松都, 8道에 나누어서 차례로 돌아가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금년에 漢城에서 『春秋』, 松都에서 『禮記』, 畿內에서 『尙書』, 嶺東에서 『論語』, 關西에서 『詩經』, 湖西에서 『周禮』, 嶺南에서 『周易』, 關南에서 『孟子』, 湖南에서 『中庸』·『大學』, 關北에서 『儀禮』를 시험했다면, 다음해에는 순환하고 그 다음해에도 또 순환하게 한다.³⁶⁾

위 글에는 총 11개의 경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한 달 전에 제시했던 9經과 비교해 보면, 『孝經』이 빠지고 대신 『大學』·『中庸』·『儀禮』가 추가되었다. 일기에는 이와 같은 변화의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위의 경서들이 시험 과목이라는 점과 『흠영』에 나타난 유만주의 경서 학습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다. 먼저 『大學』·『中庸』은 성리학의 핵심적인 경서라는 점에서 시험 과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孝經』은 修身書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분량적인 면에서도 시험 과목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의례』가 시험 과목에 포함된 점인데,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앞서 9經에 『효경』과 『주례』가 포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十三經注疏』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유만주의 경서 체계는 1786년에 『欽英讀本』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1784년경부터 편찬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흠영독본』은

36) 『欽英』 원본 제16책, 1783년 10월 10일(영인본 제5책, 68면) “試士之制 若以十經 分隸漢松八道 每歲輪次 如今年漢城試春秋 松京試禮記 畿內試尙書 嶺東試論語 關西試詩經 湖西試周禮 嶺南試易 關南試孟子 湖南試庸學 關北試儀禮 則明年云云 又明年云云.”

1786년 9월에 이르러 上經·下史의 목차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경서를 수록한 上卷(上經)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上卷에서 첫 번째 경서는 『周易』, 두 번째 경서는 『書經』, 세 번째 경서는 『詩經』, 네 번째 경서는 『春秋』, 다섯 번째 경서는 『孝經』, 여섯 번째 경서는 『論語』, 일곱 번째 경서는 『大學』, 여덟 번째 경서는 『中庸』, 아홉 번째 경서는 『孟子』, 열 번째 경서는 『周禮』, 열한 번째 경서는 『儀禮』, 열두 번째 경서는 『禮記』이다.³⁷⁾

위 글을 따르면 유만주는 『흠영독본』에 12개의 경서를 수록했는데, 이는 앞서 보았던 9經과 11經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또 12개의 경서를 『십삼경주소』의 체제와 비교해 보면, 十三經에서 『公羊傳』·『穀梁傳』·『爾雅』가 빠지고 『대학』·『중용』이 추가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춘추』 3傳 중에서는 유만주의 史家 지향이 투영되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좌씨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제외되었고, 내용상 경서보다는 字典의 성격이 강한 『爾雅』도 제외되었다. 여기에 성리학의 핵심 경서인 『대학』과 『중용』이 학습 대상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12經이 유만주의 경서 학습 텍스트로 확정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만주의 경서 학습 체계는 크게 볼 때 四書五經 체제의 기본 바탕 위에 十三經 체제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쳐 최종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37) 『欽英』 원본 제22책, 1786년 9월 14일(영인본 제6책, 360면) “上卷 經之一曰易 經之二曰書 經之三曰詩 經之四曰春秋 經之五曰孝經 經之六曰論語 經之七曰大學 經之八曰中庸 經之九曰孟子 經之十曰周禮 經之十一曰儀禮 經之十二曰禮記”

38) 유만주의 경서 체계가 『十三經注疏』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四書五經 체제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1784년의 경서 시험 과목이나 1786년의 『欽英讀本』에 『大學』과 『中庸』이 포함된 점은 그의 경서 체계에서 四書五經 체제가 여전히 유효함을 잘 보여준다. 즉, 유만주의 경서 체계는 기본적으로 四書五經 체제에 기반을 두면서, 여기에 『十三經注疏』의 영향이 가미되어 경서가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經書 학습의 방법과 실제

1) 經書 학습의 기본 원칙

『흠영』을 검토해 보면, 유만주는 경서를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유만주의 경서 학습의 실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그가 제시한 경서 학습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만주가 제시한 경서 학습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經文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775년 5월 30일의 일기에서 “경서를 읽을 때는 마땅히 經文을 위주로 하면서 訓詁를 살펴야 하고,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마땅히 편년을 위주로 하면서 기전을 참고해야 한다.”라고³⁹⁾ 하여, 經文을 우선 충실하게 읽히는 것이 경서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1779년 11월 10일의 일기에서도 확인된다. 이 날의 일기에는 『시경』 학습에 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유만주는 『시경』을 읽는 방법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시경」을 읽을 때에는 「諺解」를 참고하지 말고 「小序」를 통해 바로잡지 말며 「集傳」으로 헤아리지도 말고 다만 經文에 나아가 자신의 뜻으로 그 義訓과 音句를 살펴 정한다. 그렇게 한 이후에 「集傳」을 상고하여 자신이 해석한 訓義를 헤아리고, 「諺解」를 상고하여 자신이 정한 音句와 비교해 보며, 그 다음에 「小序」와 「集傳」의 小註를 보도록 한다.⁴⁰⁾

위 인용문에서 유만주는 『시경』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언해』·『소서』·『집전』 등의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보아서는 안되고 오직 經文에만 집중하여 스스로 經文의 의미를 해석하고 音注와 句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과 音注·句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집전』과 『언해』를 참고하여

39) 『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5월 30일(영인본 제1책, 65면).

40) 『欽英』 원본 제8책, 1779년 11월 10일(영인본 제2책, 555-556면) “讀詩 不參諺解 不頂小序 不檢集傳 而直就經文 以意審定其義訓音句 然後始考集傳 以參自解之訓義 次考諺解 以較自定之音句 然後始去看小序及傳下小註.”

자신이 생각한 義訓·音注·句讀가 타당하고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소서』와 『집전』의 小註들을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만주는 ‘經文→『集傳』·『諺解』→『小序』·小註’로 이어지는 『시경』 학습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經文을 공부하는 것이 경서 학습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학습의 단계가 『시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유만주는 위에서 인용한 일기의 뒷부분에서 “무릇 경서를 읽을 때는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한다.”라고⁴¹⁾ 주장하였다. 이는 『시경』 뿐만 아니라 다른 경서를 공부할 때도 ‘經文→『集傳』·『諺解』→小註’의 단계를 따름으로써 경문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만주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유만주는 “경서를 읽을 때는 口訣을 버려도 좋다.”라고⁴²⁾ 하여 경서 학습에서 기존의 구결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經書의 口訣에는 경문 해석의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集傳』이나 『諺解』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서 학습에서 구결이 없어도 좋다는 주장은 위의 인용문에서 『集傳』이나 『諺解』를 먼저 보지 말고 경문에 집중하여 스스로 의미를 해석할 것을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만주는 기존에 제시된 주석과 해설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經文을 해석한 다음 기존 학설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정당한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경서 학습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유만주는 ‘經文 위주의 학습’의 정당성을 朱熹를 통해 획득하려 했는데, 이는 1782년 5월 6일 일기에 수록된 주희의 언설을 통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주희는 程頤의 『易傳』은 이치가 모두 해설한 말에 있기 때문에 『周易』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나의 책을 이루지만, 자신의 『論語集註』는 단지 그 말의 의미를 밝혀 사람들의 완미함을 도울 뿐이요 經文의 이치는 모두 經文 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³⁾ 이와 같은 주희의 언급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41) 上同 “凡讀經 皆用此法.”

42) 『欽英』 원본 제12책, 1781년 7월 14일(영인본 제4책, 36면) “讀經 則去口訣亦佳.”

43) 『欽英』 원본 제13책, 1782년 5월 6일(영인본 제4책, 301면).

있는데, 첫째로 “『논어집주』의 이치는 經文 안에 있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주희는 程頤에 비해 經文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는 주희 자신과 程頤의 경전 해석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經文이며 경서 해석은 經文의 이치가 잘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經文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유만주의 견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며, 유만주가 주희의 이 말을 일기에 수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유만주는 經文 중심의 경서 학습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유학자들의 경서 주석을 폄하하거나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1779년 9월 18일의 일기에서 유만주는 명나라 홍무 연간에 시행된 과거제도의 변천을 서술하고 이 과정에서 경서의 古註疏들이 과거의 텍스트에서 제외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五經大全』에 중요 주석들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나머지는 폐지했을 것’이라고 고주소 폐지의 이유를 추측한 다음, 고주소는 결코 없앨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⁴⁴⁾ 또, 1783년 8월 28일의 일기에서도 “혹자가 말하기를 ‘博覽은 經書의 小註를 따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비록 험소하지만 또한 일리가 있다.”라고 하였다.⁴⁵⁾ 이는 경전의 小註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유만주가 경서의 古註疏나 小註를 중요한 학습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만주가 경서를 읽는 순서를 ‘經文→『集傳』·『諺解』→小註’의 단계로 규정한 것도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즉, 우선순위에서는 경문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지만, 경문 위주의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진 후에는 『集註』·『集傳』이나 小註·古註疏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만주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유만주는 이와 같은 생각을 실천에 옮겨 경서 학습에서 『十三經注疏』나 『四書大全』·『五

44) 『欽英』 원본 제7책, 1779년 9월 18일(영인본 제2책, 503면).

45) 『欽英』 원본 제15책, 1783년 8월 28일(영인본 제5책, 43면) “或言 博覽可從經書小註而得之 是說雖狹 然有猶理.”

『經大全』의 小註 등을 통해 漢·唐·宋代 학자들의 경전 주석을 많이 참고·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유만주는 경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1782년 5월 6일의 일기에서 읽는 방법에 따라 책을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책을 읽는 것에는 ‘讀’과 ‘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周易』·『書經』·『詩經』·『大學』·『論語』·『孟子』·『中庸』 등은 ‘讀本’이고, 『春秋』·『通監』·『綱目』은 ‘閱本’이다.⁴⁶⁾

이에 따르면, 『周易』·『書經』·『詩經』·『大學』·『論語』·『孟子』·『中庸』 등의 經書類들은 ‘讀’의 방법으로 읽어야 하며, 이 점에서 ‘閱’의 방법으로 읽는 『春秋』·『通監』·『綱目』의 史書類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즉, 유만주는 경서의 경우 읽는 방법부터 다른 서적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讀’은 어떻게 읽는 것을 말하는가? 이에 대해 유만주는 기존 학자들의 언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張明公이 말하였다. “讀書는 반드시 成誦해야 한다.” 朱子가 말하였다. “成誦은 곧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는 문장 짓는 것에 매우 고심했으나 잘 하지 못했으므로, 이후로는 단지 ‘讀’에만 힘썼다. 지금은 문장을 잘 쓸 수 있으니 모두 ‘讀’의 공로이다.”⁴⁷⁾

위 인용문에서 유만주는 張載의 말을 인용하여 ‘讀’은 ‘成誦’, 경문의 내용을 암송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주희의 말을 인용하여 ‘成誦’은 단순한 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문의 뜻을 정밀하고 완벽하게 숙지함으로써 문장을 지을 때에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6) 『欽英』 원본 제13책, 1782년 5월 6일(영인본 제4책, 298면) “書有讀閱二法 易書詩學論孟庸 爲讀本 春秋通監綱目 爲閱本.”

47) 上同 “張明公曰 讀書須是成誦. 朱子曰 成誦方精熟. 熹旧苦記文字不得 後來止是讀 今之記得者 皆讀之功也.”

이상을 정리하면 유만주는 경서 학습에 있어 먼저 경문 위주의 학습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했고 경문 학습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訓詁·注疏로 학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법으로 ‘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유만주가 이상과 같은 경서 학습의 원칙을 제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1782년 5월 6일의 일기가 주목된다. 이날 일기에서 유만주는 먼저 朱熹가 경서를 학습할 때 先儒들의 학설을 묵수하기만 하여 스스로 정밀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말을 인용하였다.⁴⁸⁾ 이어 그는 당시 조선 학자들의 학습 태도가 남송 시대에 주희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근세에는 습속이 구차히 학문을 도적질하고 중주가 없어서 경서를 공부하는 자들이 더 이상 경서의 본문과 선유들의 傳注를 읽지 않는다. 단지 근래에 과거에서 선발된 문장들만 취하여 암송하고 상고하며, 경전 중에서 시험의 제목이 될 만한 구절만 선택하여 모아 망령된 글을 지으며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경전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만 행실과 문장에서 편리함을 취하고 있으니, 근심스럽다.⁴⁹⁾

위 글에서 유만주는 당시의 경서 학습이 본지를 잃고 크게 문란해져 학자들이 더 이상 經文을 읽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만주는 이보다 앞서 1779년 12월 25일의 일기에서도 근세의 유자들이 六經의 說에 가탁해서 功名을 얻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救世의 책인 경서를 세상에 화를 입히는 자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⁵⁰⁾ 바로 이 점에서 유만주가 經文 중심의 학습과 ‘讀’의 학습법을 주장한 이유가 선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당시 문란해진 경서 학습의 풍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서 경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經文을 중심으로 ‘讀’의 방법을 적용하는 학습의 실천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48) 『欽英』 원본 제13책, 1782년 5월 6일(영인본 제4책, 300쪽).

49) 上同 “近世習俗 苟偷學 無宗主 至治經者 不復讀其經之本文 與夫先儒之傳注 但取近時科舉中選之文 諷誦拿考 擇取經中可爲題目之句 以意扭捏 忘作主張 明知不是經意 但取便於行文 不暇恤也.”

50) 『欽英』 원본 제8책, 1779년 12월 25일(영인본 제2책, 588면).

한편, 유만주가 위와 같은 경서 학습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 구체적으로는 계속된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만주는 1775년 5월 25일부터 1787년 9월 2일까지 13년간 지속적으로 과거에 응시했지만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만주는 실패한 擧子로서 스스로의 처지에 불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의 폐단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기도 했다.⁵¹⁾

위의 인용문에서 유만주는 당시 학자들이 근래 과거에서 선발된 문장들만 취하여 공부하고, 경전 중에서 시험의 제목이 될 만한 구절만 선택하여 모아 망령된 글을 짓는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당시 과거를 통한 관료 선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자 동시에 자신의 계속된 과거 실패가 잘못된 제도 운영에 기인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자신은 經文을 중심으로 訓詁·注疏까지 범위를 확장하면서 ‘讀’의 학습법을 적용하여 깊이 있게 경서를 학습했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에 계속 실패하는 반면, 經文도 제대로 읽지 않고 단지 시험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뽑아 공부한 이들은 과거에 합격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과 더불어 사대부들의 학문관과 학습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방안으로 經文 위주의 경서 학습과 ‘讀’의 학습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만주가 『흙영』을 통해 제시한 경서 학습의 원칙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유만주 본인은 자신이 주장했던 원칙들을 실제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欽英』에 나타난 經書 학습의 실제

본 절에서는 『흙영』에 기록된 유만주의 경서 학습 내역들을 분석·정리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유만주의 경서 인식과 학습의 원칙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흙영』의 기사 중에서 유만주의 경서 학습과 관련된 내역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51) 金何羅, 앞의 논문, 77-78면.

〈표 1〉 『欽英』에 기록된 유만주의 경서 학습 내역

학습 일시		대상 경서	주요 학습 내용
1775	1.7~26	『中庸』	通誦
	2.4~3.14	『書經』 「禹貢」	- 「禹貢」은 治水 이후 山川과 貢賦의 실상을 기록한 것 - 「禹貢」은 성인의 손에서 나온 글이므로 신뢰할 수 있음 - 「禹貢」 압송(2/9)
	2.17	『孝經大義』	「孝經大義序」 인용
	5.8	『禮記』 「祭法」	「夏后氏亦禘黃帝而郊鯀」에 대한 劉伯溫의 주석 인용
	10.11	『書經』 「堯典」	- 「堯典」 제2장을 「堯典」 전체의 綱으로 규정 - 王陽明이 『論語』 「堯曰」의 서두 24글자를 「堯典」의 탈오로 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歲次에 대한 주희의 해설 인용
『詩經』 「玄鳥」		「玄鳥」 「天命玄鳥 降而生商」에 대한 『史記』의 해석 인용	
11.30	『書經集傳』		
1776	5.16	『書經』 「無逸」	張式的 「辨殷之三宗」을 인용하여 「祖甲」을 「太甲」으로 본 孔穎達의 견해 및 이에 대한 鄭玄·蔡沈 등의 반론 소개 → 鄭玄의 반론이 근거 있는 것이라는 입장 피력
	5.17	『書經』 「微子」	王陽明의 「辨左傳微子面縛與襪之說」 인용하여 面縛與襪한 것은 微子が 아니라 武庚이라는 견해를 피력
	7.17	『春秋』	『春秋』의 四家五傳을 열람
	10.24	『孟子』	『孟子』에 대한 漢代 학자 趙岐와 宋代 학자 孫奭의 해설 내용을 다수 인용
		『禮記』 「明堂位」	「夏后氏以楛豆殷玉豆周獻豆」에 대한 鄭玄의 주석 인용
	11.2	『孟子』 「梁惠王 上」	「麋鹿攸伏」에 대한 趙岐의 해석이 왜곡되었으며, 朱熹가 『孟子集註』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
	11.28	『孟子』 「萬章 下」	孟子가 淸任和時的 구별을 논하고 孔子를 「集大成」이라 칭한 것에 대한 『疏說』의 설명 인용
12.4	『禮記』	『禮記』의 구성에 대한 胡寅의 견해 인용하고, 이것이 崔錫鼎 『禮記類編』의 맹아가 되었다고 평가	
1777	1.27~29 2.1,2,13	五經義	『詩經』, 『禮記』, 『周易』, 『書經』 등에 대한 經義를 지음 → 科擧를 대비한 학습
	2.23	『毛詩』 「白駒」	鄭玄의 주석 인용
	5.8	『書經』	「欽哉欽哉 惟刑之恤哉」에서 古文의 「恤」이 伏生の 今文에서 「謚」로 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의미를 서술
	7.27~8.5	『大學衍義』	『大學衍義』의 「格物致知之要」 인용(7.27)
	9.28	『孟子』	『孟子』 「不立乎巖墻之下」에 대한 「尹氏」의 주석 인용 → 『孟子集註大全』에 없는 주석
『禮記』 「大傳」		「大夫士有大事 省於其君干祿及其高祖」에 대한 해설 인용	

	10.1~12.27	『周易』	『周易』의 형성 과정, 주석본의 계통, 先天說, 『贊易』, 『易說綱領』과 乾·坤·屯·蒙·需·訟 등의 6개 卦 학습(10.1~21) 『繫辭上』 학습(10.23~11.23) → 『繫辭上』 通誦(11.23) 『繫辭下』 학습(12.4~16) → 『繫辭下』 通誦(12.16) 師·比·小畜·履 등의 4개 卦 학습(12.24~27)
1778	1.4~3.2	『周易』	泰·否·隨·蠱·臨·剝·无妄·頤·大過·習·咸·恒·遯·晉·家人 등의 16개 卦 학습(1.4~2.16) / 坤卦 학습(3.2)
	9.26	『書經』	張九成 『泰誓論』 중 일부를 인용
	9.27	『詩經』 『騶虞』	『騶虞』에 대한 賈誼의 해석 인용하고 『詩集傳』과의 차이를 지적함
	10.2	『春秋』	北宋의 학자 孫復의 『春秋』 연구서인 『春秋尊王發微』에 대한 내용 서술
	10.6	六經	蘇文公의 『六經論』을 읽음
	10.23	『周易』 『孟子』	『주역』 『繫辭』에 ‘子曰’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고 보는 주장에 대한 朱熹의 반론을 인용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宋儒의 견해를 인용하여 『孟子』의 大旨을 ‘遏人欲 擴天理’로 정의함.
1779	1.2	『孟子』	‘不忍之心’에 대한 朱熹의 설명을 『朱子語類』에서 인용
	5.28	『孟子』 『論語』 『春秋左氏傳』	句讀 및 音注 개정에 대한 내용 → 明代 학자 郝敬의 『孟子』 句讀, 『樗齋漫錄』의 『論語』 句讀에 관한 내용 인용
	6.7	『春秋』	『춘추』는 일에 따라 명칭을 바르게 사용했을 뿐이지만 그 가운데 褒誅가 자연히 드러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
	6.26	『周禮』	『周禮』의 ‘六夢’에 대한 李卓吾의 해설 인용
	6.29	『周易』	生數와 成數에 관한 子夏의 말 인용
	7.21	『周易』	楊萬里的 『楊氏易傳』 인용
		『書經』	“衛宏이 『古文尚書』를 정하였다”고 한 다음, 衛宏이 지은 서문 인용
	10.15	『禮記』	吳澄이 『小戴記』 36편을 교정했음을 언급하고, 吳澄의 서문을 인용
	10.30	『周易』	1에서 10까지 수의 생성에 대한 설명 수록
	11.1	『周易』	-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을 인용하고, 陰陽이 교합하여 卦와 萬物이 생성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서술 - ‘參天兩地而倚數’를 인용하고 數에 관한 내용을 서술
11.10	『詩經』	『詩經』의 人名 표기법, 『周南』·『召南』 이후 南國에 變風이 없는 이유, 『詩經』 讀法 등을 서술	

1780	2.18	『書經』 「皐陶謨」	‘寅協恭和衷哉’에 대해 張孚敬이 ‘和’와 ‘同’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 인용
	6.7	『大學』	『大學章句大全』의 小註에 기록된, 朱熹의 格物致知에 관한 해설 인용
	6.15	『周易』 「繫辭 下」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 “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 作八卦” 등에 대한 孔安國의 해석을 인용하고, 孔安國이 『周易』 본문을 깊이 상고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
	7.15	『書經』	당나라 학자 李緯의 『尚書放實』의 내용 인용
	9.27	『禮記』	영조대 金在魯가 편찬한 『禮記補註』를 읽음
	10.11	『論語』	逸民의 의미에 관한 내용 서술
		『春秋』	『春秋』는 曲直이 명료하고 是非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서 亂臣賊子가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두려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回心하게 된다고 주장
		『春秋』	『春秋』를 尊王·經世의 책으로 평가한 襄文의 논설 인용
	10.12	『春秋』	『春秋』를 尊王·經世의 책으로 평가한 襄文의 논설 인용
10.27	『周易』	『周易』의 64卦 384爻를 周天 360도와 24절기에 分配하는 내용 서술	
11.18	『大學』	‘格物致知·誠意·正心’에 대한 『大學或問』의 내용 인용	
1781	2.25	『詩經』 「采蘋」	‘采蘋’ 제2장 및 그에 대한 주희의 주석 인용
	8.8	『孟子』	『孟子或問』을 읽음
1782	3.5	『書經』	‘禹貢策』을 읽음
		『周易』	『周易』 주석서인 『八索世說』에 대한 설명 수록
	4.6	『春秋』	胡安國의 『春秋說』에 대한 주희의 논평 인용
	5.16	『書經』	천체의 度數에 대한 주희의 해설 인용
1783	2.10	四書疑	밤에 四書疑 13~14편을 읽음
	6.10	『周易』 「繫辭 上」	‘崇高莫大乎富貴’에 대한 陸佃의 해설 인용
	9.3	『孟子』 「萬章 上」	‘湯崩 太丁未立 外丙二年 仲壬四年 太甲顛覆湯之典刑’을 인용하고, ‘太丁未立’의 ‘立’자는 ‘外丙·仲壬·太甲’ 등의 다음에 와야 할 3개의 ‘立’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9.21	『周易』	管東溟의 『易論』 인용하여 ‘知進退存亡得喪’의 의미 서술
	11.18	十三經	새로 간행한 『十三經注疏』를 읽음
1784	5.29	『春秋』	昭公 11년조의 “朝有著定”에 대한 『十三經注疏』 杜預의 注(著定期內列位常處謂之表著)를 인용
	10.18	『書經』	『尚書』(『書經』)의 大旨를 ‘毋不敬’으로 규정
	11.14	『孟子』 「離婁 下」	‘齊人有一妻一妾章’을 읽음

1785	6.12	『書經』	『尙書』(『書經』) 今文의 次第 改正
	7.30	『春秋』	『春秋』에 기록된 月은 夏正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8.4	『春秋左氏傳』	隱公 4년조의 衛나라 莊姜이 자식이 없자 衛人들이 「碩人」시를 지어준 일과 『詩經』의 「碩人」 제1·2장의 내용 인용.
1786	1.9	『周易』 「履卦」	「履卦」 大象에 대한 程頤의 주석 “夫上下之分明然後 民志有定 民志定然後 可以言治”를 인용하고, ‘民志有定’과 ‘民志無定’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서술
	1.20	四書	아이를 가르치던 중에 四書의 注를 열람 『論語集註大全』의 小註에서 꿈에 관한 내용 인용
	6.16	『春秋』	春秋四傳의 注疏를 상고함
	8.14	『論語』	孔子가 『論語』에서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 까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
1787	2.30	『禮記』 「春秋」	『大戴禮』와 『春秋繁露』를 읽음
	3.2~3	『春秋』	『春秋繁露』를 읽음

이상 <표 1>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유만주의 경서 학습의 특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경서 학습의 추이를 보면 1780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1781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학습 사례가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일기에 학습 사례가 실리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경서 학습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만주가 『欽英讀本』 편찬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1781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 보았듯이 1779년에 『欽英閣五經讀本』과 『四書閣本』의 편찬 의사를 밝혔던 유만주는 1784년 2월경부터 經書와 史書를 종합·정리한 『흙영독본』 편찬을 추진하였고,⁵²⁾ 2년 7개월여가 지난 1786년 9월에 목차를 확정하였다.⁵³⁾ 독본 제작을 위해서는 경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비록 『흙영』에 학습 사례가 적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만주의 경서 학습은 꾸준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유만주가 학습한 경서들을 살펴보면, 五經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서경』·『춘추』·『주역』 등의 3종이 특히 많이 읽혀졌다. 이는 경서

52) 『欽英』 원본 제17책, 1784년 2월 18일(영인본 제5책, 141면).

53) 『欽英』 원본 제22책, 1786년 9월 14일(영인본 제6책, 360면).

를 중국 고대의 史書로 인식했던 유만주의 학문 경향이 실제 학습 과정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춘추』와 『서경』은 경서 중에서 史書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유만주 자신이 후대 史書의 전범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⁵⁴⁾ 경서 학습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주역』은 “『周易』을 알지 못하면 역사를 쓸 수 없다.”거나⁵⁵⁾ “六合·萬古·萬事·萬物에서 일찍이 하나라도 『周易』 밖에서 나온 것이 있는가?”라고⁵⁶⁾ 한 유만주의 평가를 볼 때, 역시 史學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많이 읽혀졌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한편, 四書 학습 사례는 五經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는 四書를 경서 학습의 출발이자 기초로 본 유만주의 경서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만주가 『흠영』을 쓰기 시작한 것이 21세 때임을 고려한다면 경서 학습의 출발인 四書 학습은 그 이전인 10대 시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흠영』에는 四書 학습의 비중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중에도 『맹자』 학습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유만주가 『맹자』를 매우 중시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만주는古今의 문자 중에서 계속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상서』·『맹자』·『사기』 뿐이라고 할 정도로 『맹자』를 좋아하였다.⁵⁸⁾ 또 그는 맹자를 매우 존송하여 “맹자는 진실로 大英雄이니 그가 말한 것은 모두 大經大法의 정당함을 따르고 있다.”라고⁵⁹⁾ 했는데, 이러한 존송 의식도 그의 『맹자』 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흠영』의 경서 학습 내용을 보면 유만주가 상당히 다양한 주석서들을 폭넓게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흠영』에는 성리학적 경학 주석의 중심인 朱

54) 본고 2장 1절 참조.

55) 『欽英』 원본 제9책, 1780년 4월 23일(영인본 제3책, 84면).

56) 『欽英』 원본 제22책, 1786년 9월 4일(영인본 제6책, 348면) “凡六合萬古萬事萬物 何嘗一半個 出於易之外乎.”

57) 유만주는 1777년 10월 1일부터 1778년 3월 2일까지 약 5개월간 집중적으로 『주역』을 연구했는데(〈표 1〉 참조), 이는 『흠영』의 경서 학습 기록 중에서 유만주가 하나의 경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유일한 사례이다.

58) 『欽英』 원본 제18책, 1784년 9월 3일(영인본 제5책, 322면).

59) 『欽英』 원본 제18책, 1784년 10월 29일(영인본 제5책, 382면) “孟子 眞大英雄也, 其爲說一從大經大法中正當說.”

熹와 程頤의 주석은 기본이고, 漢·唐·宋·元·明代 여러 학자들의 경서 해설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 있다. 朱熹와 程頤를 제외하고 『흠영』에 해설이 인용된 경학가들을 경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欽英』에 인용된 경학가들(朱熹·程頤는 제외)

경서명	학설이 인용된 경학가
春秋	董仲舒, 杜預, 孫復, 羅欽順
周易	孔穎達, 荀爽, 韓伯, 孔安國, 楊時, 邵雍, 陸佃, 蔡元鼎, 楊萬里, 項安世, 錢時, 朱震, 徐直方, 蔡淵, 吳澄, 胡炳文
書經	鄭玄, 孔穎達, 張栻, 蔡沈, 張九成, 衛宏, 張孚敬, 王守仁, 李綽
詩經	鄭玄, 眞德秀, 賈誼, 朱公遷
禮記	劉伯溫, 胡寅, 吳澄
周禮	李卓吾
孟子	趙岐, 孫奭, 眞德秀
大學	眞德秀

〈표 2〉에서 정리한 학자들의 학설은 개별적인 경학 저술에서 인용된 경우들도 많지만, 상당수는 『十三經注疏』의 내용이나 『四書大全』·『五經大全』의 小註에서 인용되었다. 또, 『주역』에 대한 주희 해설은 『周易本義』보다 『朱子語類』에서 인용한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밖에 인명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宋儒曰’ 등으로만 쓴 다음 해설을 인용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상과 같이 유만주가 여러 학자들의 주석서와 『十三經注疏』·『朱子語類』 등 다양한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경서를 학습했다는 사실은 앞서 검토한 유만주의 경서 학습 원칙, 즉 經文 위주의 학습을 강조했던 것과는 일견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경서 학습이 ‘經文 위주의 학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經文 중심의 학습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傳注에 대한 학습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흠영』에 기록된 유만주의 경서 학습은 經文 위주의 단계를 넘어서 傳注를 대상으로 학습 범위가 확장된 단계였으며, 經文 위주의 학습은 『흠영』 기록이 시작되기 전인 10대 후반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만주가 경서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학설들을 참고했고 그 내용을 일기에 인용했지만, 경서를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학설을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흠영』의 경서 학습 내역을 보면, 경문의 주요 내용 및 그에 관한 해설을 인용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유만주의 독자적인 견해로 볼 만한 사례로는 『주역』 「繫辭 下」에 대한 孔安國의 해석이 경문을 깊이 상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한 것이나,⁶⁰⁾ 『서경』의 大旨를 『예기』와 마찬가지로 ‘毋不敬’으로 정의한 것,⁶¹⁾ 그리고 『주역』 「履卦」 大象에 대한 程頤의 해석에 나오는 ‘民志有定’과 ‘民志無定’의 의미를 설명한 것⁶²⁾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유만주가 경서 학습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가 드문 것은 그의 경서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유만주는 경서를 고대의 역사적 사실을 수록한 史書로 이해했고, 경서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史書의 전범인 경서를 잘 공부함으로써 좋은 역사서술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즉, 유만주의 경서 학습은 經學 자체보다 史學의 토대 구축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춘추』 三傳 중에서 의리를 위주로 한 『공양전』·『곡량전』보다 역사적 사실이 충실히 수록되어 있는 『좌씨전』을 더 중시하여 『흠영독본』에 『좌씨전』만 포함시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경학 이론에 대한 깊은 연구는 유만주의 경서 학습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만주의 경서 학습법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유만주는 경서를 공부할 때 ‘讀’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讀’은 ‘成誦’, 즉 경서의 뜻을 정밀하게 숙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⁶³⁾ 그렇다면 과연 유만주가 실제 경서 학습에서 이 방법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

60) 『欽英』 원본 제9책, 1780년 6월 15일(영인본 제3책, 110면).

61) 『欽英』 원본 제18책, 1784년 10월 16일(영인본 제5책, 366면).

62) 『欽英』 원본 제21책, 1786년 1월 9일(영인본 제6책, 120면).

63) 본고 3장 1절 참조.

가 있는데, 1777년 10월부터 1778년 3월 사이에 있었던 『주역』 학습은 이를 확인하기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학습 과정을 보면, 유만주는 먼저 10월 1·2·6일의 3일 동안 「序」·「圖」·「贊」·「易說綱領」 등을 통해 『주역』의 형성 과정과 기본 원리, 주석서의 계통 등을 정리하였다. 이어 10월 7일부터 21일 사이에 7일 동안 乾·坤·屯·蒙·需·訟 등 6개의 卦를 하루에 한 卦씩 공부하였다(訟卦는 2일). 이어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 사이에 14일 동안 「繫辭 上」을, 12월 4일부터 16일 사이에 11일간 「繫辭 下」를 학습하였다. 「繫辭」를 마친 후 괘에 대한 학습을 재개하여 12월 24일부터 이듬해 2월 16일 사이에 19일 동안 20개의 卦를 공부했으며, 마지막으로 3월 2일에 坤卦를 복습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만주는 『주역』을 학습하면서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는 하루에 卦 하나, 「繫辭」 한 장씩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인 학습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만주는 1777년 11월 23일에 「繫辭 上」, 12월 16일에 「繫辭 下」의 학습을 마치면서 通誦, 즉 그동안 공부했던 「繫辭 上」과 「繫辭 下」의 내용 전체를 암송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였다.⁶⁴⁾ 이처럼 유만주가 『주역』 학습에서 매일 적은 분량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암송으로 마무리했던 것은 자신이 주장한 ‘讀’의 학습법을 본인 스스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4. 맺음말

본고는 『欽英』에 기록된 경서 학습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여 유만주의 경서 인식과 학습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제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

64) 유만주가 경서를 공부하면서 경서 내용을 암송했던 사례는 『中庸』과 『書經』 학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1775년 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중용』 전체를 암송했으며[『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1월 2일·7일·26일(영인본 제1책, 7-8면, 10면)], 또 같은 해 2월에 『서경』 「禹貢」을 공부할 때에도 「滿百遍」까지 암송한 일이 있다[『欽英』 원본 제1책, 1775년 2월 9일(영인본 제1책, 12면)].

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史家로의 지향을 가졌던 유만주는 儒家 경서들도 史家의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즉, 그는 五經을 중국 고대의 역사적 사실이 수록된 史書이자 후대 역사서술의 전범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유만주에게 五經 학습은 올바른 역사 편찬을 위한 학문적 토대 구축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四書 학습에 대해서는 史學의 차원보다는 경서 학습의 출발점 내지는 학문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만주의 경서 인식은 경서 독본의 편찬으로 체계화되었다. 그의 경서 독본은 당초 일반적인 四書五經 체제에 기초하여 『欽英閣五經讀本』과 『四書閣本』으로 출발했다가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12經의 『欽英讀本』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여기에는 유만주가 경서 학습에서 자주 참고하였던 『十三經注疏』의 경서 체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는 경서 학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經文 위주의 학습'으로, 경서를 공부할 때 우선은 經文을 충실하게 익혀야 하며 그 다음에 학습의 범위를 傳注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서를 공부할 때 '讀'의 방법, 즉 '成誦'을 통해 경서의 본지를 완벽하고 숙지함으로써 作文에서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제시에는 경서의 본지를 깊이 탐구하지 않고 과거 합격에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 익히는 것이 당연시되던 당시 상황에 대한 유만주의 비판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흙영』에 기록된 유만주의 경서 학습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그의 경서 인식 및 학습의 원칙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학습 대상으로는 史書의 성격이 강한 五經, 그중에서도 『書經』·『春秋』·『周易』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四書 중에서는 『맹자』가 가장 많이 읽혀졌다. 다음으로 유만주는 경서를 공부할 때 朱熹·程頤의 주석뿐만 아니라 漢代부터 明代까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학설들을 폭넓게 참고·인용했는데, 이는 『흙영』을 기록할 당시 유만주의 경서 학습이 이미 經文 위주의 단계를 넘어 傳注까지 학습 대상이 확장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주역』 학습 사례에서 보듯이 매

일 적은 분량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마지막은 암송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는 자신이 주장한 ‘讀’의 학습법을 스스로 실천해 나갔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 兪晩柱, 『欽英』, 經書, 史書, 經書 讀本

투고일(2014. 3. 9), 심사시작일(2014. 3. 10), 심사완료일(2014. 3. 20)

〈Abstract〉

Yu Man-ju(俞晩柱)'s Perception and Study on Confucian Classics

Kang, Moonshik *

This paper is focused on Yu Man-ju(俞晩柱)'s perception and study on Confucian classics through the analysis of *Heumyeong*(『欽英』). The distinct features of Yu Man-ju's understanding of Confucian classics found out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Yu Man-ju perceived Five classics as the historiography about ancient China and the ideal types of historical description. So he thought that the one who want to be a good historian must study Five classics. Meanwhile Yu Man-ju considered Four books as the basic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Second, Yu Man-ju's perception of Confucian classics was systematized by the compilation of reading books for Confucian classics named *Heumyeongdokbon*(『欽英讀本』). His compilation of *Heumyeongdokbon* was influenced by the form of the Five classics and Four books(四書五經) and *Sipsamkyeongjuso*(『十三經注疏』).

Third, Yu Man-ju suggested two principles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One was studying mainly with the body of Confucian classics and the other was using the method of Dok(讀). Dok(讀) is a kind of reading form having the thorough knowledge of Confucian classics through intensive reading and memorization. And actually Yu Man-ju made an effort for practicing his principles when he studied Confucian classics.

Key Words : Yu Man-ju(俞晩柱), *Heumyeong*(『欽英』) Confucian classics(經書), historiography(史書), reading books for Confucian classics(經書 讀本)

*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NU.